

광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파행은 피했지만...

더민주-국민의당, 8일 임시회 개최하되 협의는 계속키로 더민주 합의 안되면 의사일정 불용 방침 ... 의장선거 난항

광주시의회가 후반기 의장선거 일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일 후반기 첫 임시회 본회의는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의장 선거 등 원 구성 일정은 본회의 개최와 별도로 양당이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어서 의장 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질지는 불투명하다.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선거 등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예정된 회의는 일부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무

산됐지만, 의원들이 다시 소집 결정을 하면서 성사됐다.

예초 국민의당 소속인 조영표 의장은 운영위 협의가 어려우면 직권상정으로 본회의를 소집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민주 측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의 결속을 채우지 못해 '파행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직권상정은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위는 일단 22일까지 예정된 임시회를 8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하되 곧바로 정회한 뒤 원구성 협상을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5일부터 의장 후보등록도 반기로 했다.

양당은 임시회 개최 전까지 원구성 협상을 진행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8일 정상적으로 의장 선거를 할 예정이다. 운영위의 이같은 결정은 의사일정 파행 논란을 없애는 대신, 시간을 갖고 원구성 협상을 하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의장선거가 곧바로 치러질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민주 측이 남은 며칠간 원 구성 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하되 개최 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불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시회 개최까지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회기 15일 간 원구성 협

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측은 의석수에 따라 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나누는 '국회식 배분'을 요구하며 원 구성과 관련한 협의 없이는 의사일정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장은 의원들 '자율투표'로 선출하고 상임위원장은 정당별로 배분하는 절충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회는 더민주 13명, 국민의당 8명, 무소속 1명으로 더민주가 제1당이지만 소속 의원 4명이 이탈 조짐을 보였다.

국민의당 측은 현재 판세 속에서 예정대로 '자율투표'로 의장을 뽑으려 하지만 더민주 측은 '국회식 배분'관철로 판세를 뒤집어야 하는 형국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 도시가스 보급률 전국 하위권

2014년 기준 보급률 41% 전국 평균 51%에 못미쳐

전남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시·군간 도시가스 보급률 격차도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시가스 보급을 둘러싼 양극화 현상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4일 전남도와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도시가스 회사별 기준 전남지역 가정용 보급률은 41.0%로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13위다. 전국 평균은 51.0%다.

전남지역엔 목포도시가스(주)·(주)해양도시가스·대화도시가스(주)·전남도시가스(주) 등 4개의 도시가스 보급회사가 17개 시·군 37만 세대에 각각 보급하고 있다.

목포도시가스(보급률 32.6%)는 목포·영암·무안·강진을, 해양도시가스(38.2%)는 나주·화순·장흥·영광·담

양·해남·함평·장흥을, 대화도시가스(43.5%)는 여수를, 전남도시가스(47.3%)는 순천·광양·곡성·구례지역에 도시가스를 각각 보급하고 있다.

각 시·군별로 가정용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회사별로 최대 14.7%p 가장 보급률 격차가 나는 점을 감안하면 각 시·도간 편차도 크다는 얘기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세대 상당수는 가격이 비싼 LPG 개별용기(프롤판나 등유 등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가스 요금 대비 실내등유와 LPG 개별용기 가격이 1.09배·1.74배 가장 더 비싼 점을 감안하면 도시가스 1만원을 쓰면 LPG는 1만7400원을 내는 셈이다.

이 같이 전남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데다 각 시·군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도시가스 공급회사의 영업비용과 감가상각비·기타 경비 등 지역별로 도시가스 공급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해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김승권 전남복지재단 대표 1년도 안돼 돌연 사퇴

김승권(61)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임기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돌연 사퇴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대표이사는 지난달 30일 복지재단 정기이사회에서 사표를 제출했다.

김 대표이사는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상경해서 검진을 받은 뒤 몸에 문제가 있다며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이사는 전남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7월 29일 임명됐으나 임기(3년)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게 됐다.

전남도는 이날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신현숙 보건복지국장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도는 조만간 공모절차를 밟아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 농산물 유통구조 어떻게...’ 토론회 4일 오후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 농산물 유통구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시의회 김민준 산업건설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시민과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산업용 로봇축제’ 광주서 열린다

국제로봇산업전 7일부터 DJ센터서 ... 제조·의료·농업 등 로봇 한자리에

산업용 로봇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광주국제로봇산업전이 열린다.

광주시는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에스마이스연구원(주)이 주관하는 광주국제로봇산업전이 7일부터 9일까지 국내외 80여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국제그린카전시회와 국제수송기계부품산업전과 함께 열려 최신

로봇 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관심을 끈다.

전남대 로봇연구소는 원격제어 단말기로 뇌수술 로봇을 비롯해 능동 캡슐형 내시경 로봇, 박테리오투 구동을 위한 자기조항 시스템, 수술용 유연바늘 로봇 등 최신 의료 로봇을 선보인다.

또 사용자 친화적이고 유연성에 초점을 맞춘 협업로봇 제조사 유니버설 로봇

이 기기를 추가하지 않고도 나사 조임작업을 할 수 있는 'UR3' 로봇 등을 보여준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축산농가에서 TMR사료(섬유질혼합사료)를 무인 공급하는 급이 로봇을, 헬퍼로봇은 원예 작물 재배용 포트인 원통형 종이 포트 파종 로봇 시스템을 전시, 시연한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인적 재난사고 갈수록 증가세

화재·해양·익사사고 늘어

전남도내에서 인적 재난사고 발생건수, 인명피해가 갈수록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화재, 해양, 익사, 등산, 추락 등의 사고가 급증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인적 재난사고 발생건수는 1만3459건, 인명피해 1만8524명(사망 629명 부상 1만7895명)에서 2013년 1만3903건, 1만8526명(사망 636명 부상 1만7890명), 2014년 1만4851건, 1만9085명(사망 889명 부상 1만8196명) 등으로 집계됐다. 2년간 인적 재난사고는 1392건, 인명피해는 561명(사망 260명 부상 301명)이 각각 늘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감안 하더라도 사고와 피해 증가폭이 크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 부문은 2012년 1만250건(인명피해 1만7806명)에서 2014년 1만154건(1만7142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화재 2425건(77명)에서 2620건(174명), 해양 297건(9명)에서 386건(402명), 익사 61건(103명)에서 338건(172명) 등으로 증가했다.

2012년 등산 사고는 70건(66명)에 불과했으나 2년 뒤 366건(321명)으로, 추락 사고는 134건(143명)에서 286건(255명)으로 2~4배씩 증가했다. 농기계 사고와 차전거 사고 역시 2012년 114건(126명)에서 2014년 336건(305명), 7건(7명)에서 88건(78명)으로 각각 큰 폭으로 늘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20대 총선, 70대·남성·전남 투표를 높였다

중앙선관위 분석

제20대 총선에서는 연령별로 70대, 성별로는 남성, 지역별로는 전남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대 총선 투표율 최종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연령별로는 70대가 73.3%로, 전체 평균 투표율(58.0%)보다 15.3%포인트나 높아 최고를 기록했다.

60대가 71.7%를 기록해 뒤를 이었고 ▲50대(60.8%) ▲40대(54.3%) ▲20대

(52.7%) ▲30대(50.5%) 등의 순이었다. 성별 투표율은 남성(58.8%)이 여성(57.4%)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19대 총선과 비교하면 여성의 투표율 증가폭(4.3%)이 남성의 투표율 증가폭(3.1%)보다 컸다.

지역별로는 특별·광역시 단위에서는 세종(63.4%)·광주(61.6%)·서울(59.6%) 등이 높았고 대구가 54.7%로 가장 낮았다. 또 단위에선 전남(63.6%)과 전북(62.8%) 등 호남의 투표율이 높았고, 충남이 55.4%로 가장 낮았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406-중-81650호
www.sejonghospi.com

세종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

진료내용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을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작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두현 원장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수신경계: 외상성척수손상, 척수종양, 척수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세종요양병원
장기요양·수술후 재활·임케어병동·치매·중풍·집중치료실·인공신장실 대표전화 (062)236-5200
의사·한의학 협력 진료 병원

▲전남대병원에서 광주전남 방향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